

지금 하고, 지금 바꾸겠습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 출생
서림초, 선인중, 인하사대부고 졸업
인하대 정책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석사 졸업
OBS경인TV 방송정책국장 (전)
iTV경인방송 보도국 기자 (전)
인천일보 편집국 기자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전)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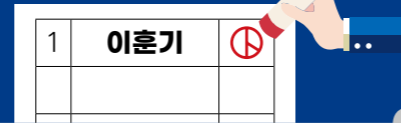


사전투표 안내

사전투표로 **남동발전**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4월 **5일(금),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1 남동은 이제, 이훈기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후원안내
농협 301-0346-5473-41
예금주 남동구을선거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이훈기후원회

N 네이버



'이훈기' 검색

f 페이스북



hoongihoongi



선거사무소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117

더불어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를 선거구
구월2동, 간석2·3동, 만수1·2·3·4·5·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책자형 선거공보

지금, 한다 지금, 바꾼다 남동은 이제,

1 이훈기

행동하는 언론인에서 이제는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오직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동을 더 새롭게, 더 자랑스럽게
남동주민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더 문화적이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힘과 연대하는 힘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약자 곁에 가장 먼저 함께하고,
주변을 끝까지 돌보며,
새롭고, 도전적이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바꾸겠습니다.
남동은 이제, 이훈기입니다.



언론장악 저지 및 언론개혁의 적임자

이훈기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선택한
영입인재 13호**

**불의에 라협하지 않으며,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
행동하는 언론인 이훈기**

저는 지난 30년간 인천에서 신문 및 방송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천일보 재직 시절에는 '인천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사건'을 주민의 편에서 성역없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철회를 이끌어내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인천 고잔동 과격양 사건'을 수년간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끝에 폐유리섬유와 주민들이 걸린 암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 담방마을 시영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 등을 심층 보도하여, 인천시의 잘못을 밝혀내고 주민들에게 약 138억 원의 분양비를 돌려주었습니다.

iTV에서 방송사를 지렛대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려는 대주주와 방송사를 지지체장 선거캠프화 하려는 회장에 맞서 전면적인 방송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서 회장퇴진과 iTV 재허가 취소를 받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방송사를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려는 대주주에게 언론을 말릴 수 없었기에, iTV 구성원들과 함께 스스로 재허가를 거부하고, 자발적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시청자가 주인인 **공익적 민영방송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구성원들은 퇴직금을 모아 방송 기금을 만들었고 주유소, 학교급식, 세차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4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했습니다. 마침내 1만 5천명의 설립 발기인을 모아, 1,093일 만에 OBS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처럼 약자를 대변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감시자가 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언론인입니다.



국민은 피곤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만으로 힘든데, 뉴스를 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내팽개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통제기구로 앞장서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고소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저는 30년 언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민주당 영입인재가 되어 남동 시민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인천을 지키며, 우리의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문제를 해결했던 인천 및 남동 개혁의 적임자

인천시는 지난 24일 동춘마을등 인천시내 5개 시영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금 가운데 더 거둬들인 1백38억4천1백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500년, 남동 가족

저의 집안은 조선 성종 때 정숙공 이척이 인천 화도에 장전을 받아, 그 때부터 17대에 걸쳐 500년 넘게 인천에 살아왔습니다.
남동에서는 생애 첫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동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두 딸은 남동에서 초·고를 나왔습니다.



인천 언론의 시작과 함께한 3대 76년 인천 언론인 집안

저의 조부 이종윤은 1945년 해방 직후, 최초의 지역일간지인 대중일보 창간에 기여하며, 20년간 인천지역 언론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부친 이벽은 대중일보를 시작으로 동양통신, 경기일보에서 26년간 기자로 활동하다가 유신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강제해직 당한 분이십니다. 조부는 이승만 독재에, 부친은 박정희 독재에 항거하며 강직한 인천 지역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향으로 기자를 천직으로 여기고 인천일보를 시작으로 iTV, OBS에서 **30년간 언론인으로 지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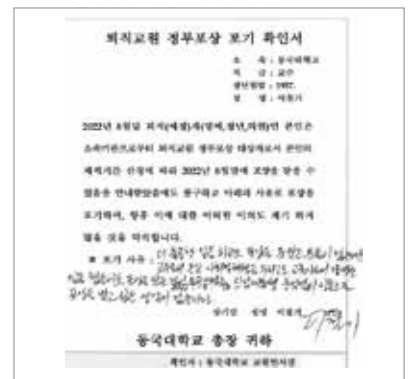
나라를 지킨 영웅,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어머니

저의 어머니는 6.25 한국전쟁 당시 중학교 5학년임에도 학도의용군으로 육군에 자원입대해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입니다. 2013년 호국영웅기장을 받았습니다.



강직 그리고 기개 그 자체, 윤석열 정부포상을 거절한 형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포상 받고 싶지 않다며 퇴직교원 정부포상을 거부한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가 바로 저의 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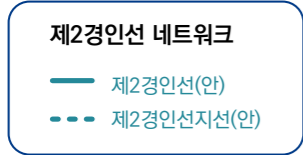
우리가 사랑하는 남동을 위해,
어디서든 쉽게 탈 수 있는 교통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인프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교통** 어디든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동네

- ✓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논현 연장 조기 착공
- ✓ 배차간격 짧은 서창-구월-만수-인천대공원을 잇는 대중교통 확충
- ✓ 등하교 전용, 출퇴근 전용, 심야 전용 공공버스 신설

● **제2경인선 네트워크** 빠른 환승, 빠른 연결 달라지는 서울 접근성

- ✓ 인천논현-광명-신림 연결 예정으로 KTX광명역 접근성 강화 및 인천-목동(5호선)
- ✓ 인천-신림(2호선)등 서울 접근성 강화로 인천 서남부권의 교통망 획기적 확충
- ✓ 신천신림선(안)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사업 추진 시 제2경인선과 연결 예정



우리가 사랑하는 남동을 위해, 육아가 행복한 동네
유능한 지역 인재가 많이 나오는 동네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교육** 이사·전학 안가고 초중고를 모두 남동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초중고 학교에 잔디밭 운동장으로 환경 개선
- ✓ 방과후 수업 확대 운영
- ✓ 진로상담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심리상담센터 확충

● **보육** 돈 안 들이고 육아가 가능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 남동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설치
- ✓ 장난감도서관, 주요 동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 집 근처 공공 키즈카페 자유놀이실(노리학교) 및 이용버스 운영

우리가 사랑하는 남동을 위해,
문화와 스포츠를 일상에서 즐기고,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 일상에 문화를 더하고, 운동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 동네

- ✓ 기존의 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
- ✓ 공공형 카페 및 작은 도서관 확충
- ✓ 향토길 조성, 물놀이 등 놀거리 시설이 풍부한 공원으로 탈바꿈

● **복지** 비용은 낮추고 케어는 확실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지킴이' 도입
- ✓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적극 확대
- ✓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우리가 사랑하는 남동을 위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365일 안전하고, 생태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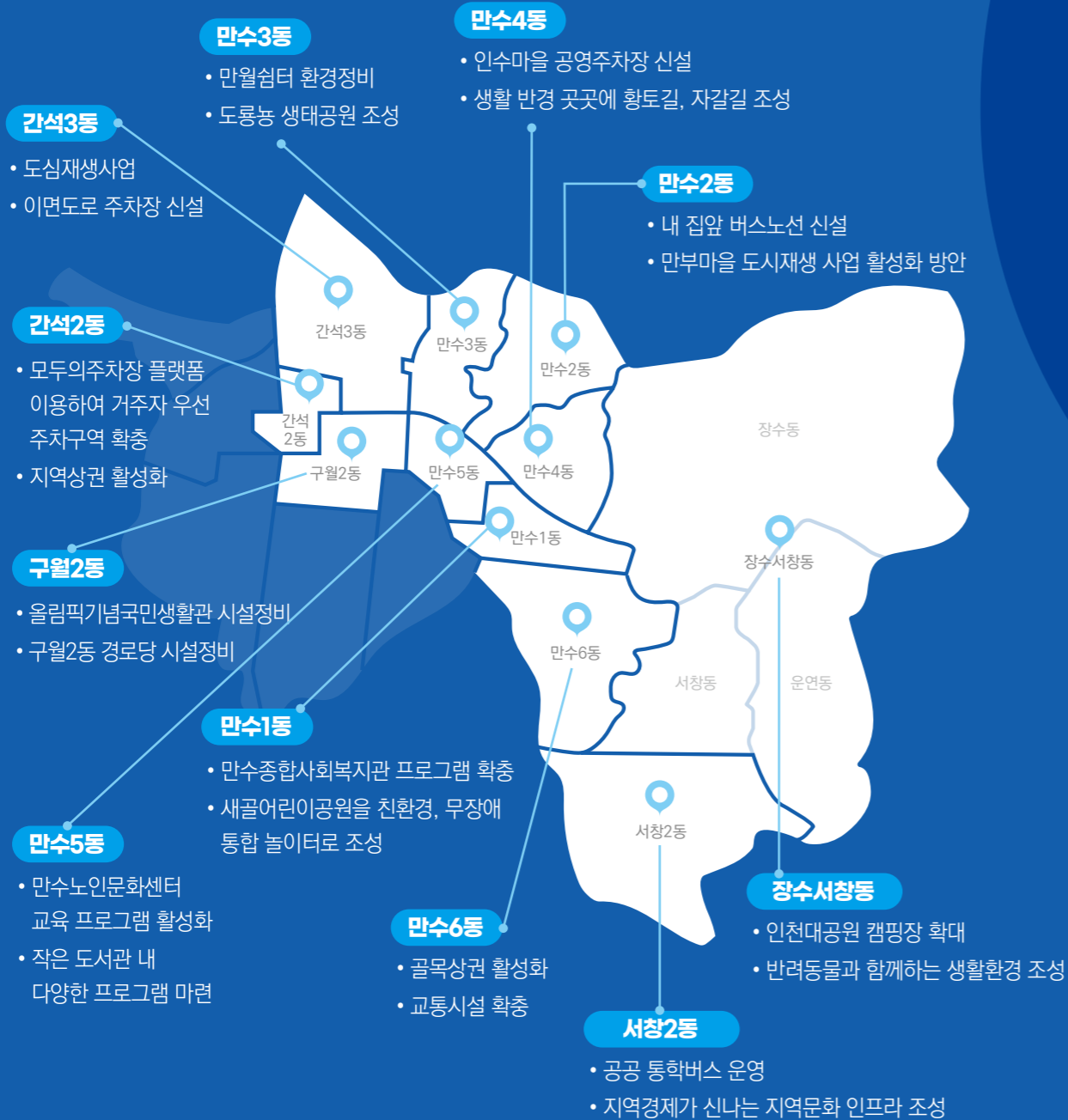
● **안전** 혼자라도, 밤늦더라도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겠습니다.

- ✓ 경사 도로 열선 추진
- ✓ 사각지대 없이 CCTV 설치 추진
- ✓ 전선 지중화 추진

● **환경** 내가 즐기고! 내가 쾌적한!
내 가족 같은 반려 동물도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인천대공원 캠핑장 확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
- ✓ 재건축, 재개발 정비 지원 방안 마련
- ✓ 만수천 생태복원으로 수변공원 조성, 만수천 주변 공용주차장 확보

남동을 구석구석 지금 하고, 지금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약, 이훈기가 지금 하고, 지금 바꾸겠습니다

- '월 3만원 청년패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 온동네 초등돌봄
-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 양육비 책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직장인 지갑은 두껍게, 휴식은 확실하게!
- 청소년의 희망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입틀막’ 방송심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현 정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뒤,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교체를 무리하게 시도하여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사에 있는 기자 개인에 대한 탄압”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퇴치”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사, 보도 내용까지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뉴스의 주요 소비 플랫폼인 포털사이트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임명권, 재정 압박, 내용 검열에 더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층 더 진화한 언론장악을 국민은 참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지 말라는 정부



이훈기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언론 통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정 정권의 전리품으로서 공영방송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편에서 언론 본연의 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보도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하며 취재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대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지역·독립 언론과 중소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만드는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